

## 韓國放射線醫學界의 古今

大韓放射線醫學會 名譽會長

趙 重 參

日政때 일이다. 當時朝鮮總督府病院(現在 國立서울醫科大學附屬病院의 前身)에 X-線診斷用機械가 처음으로 設置된 것이 1923年이라고 記憶된다. 美國 Wapler 會社製 機械整流로된 지금 생각하면 骨董品에 屬하는 裝置였지만 그것으로 撮影도하고 透視도 했었다. 勿論 無防電擊裸線의 裝置로서 機械에 스윛치를 넣으면 病院이 떠나갈듯이 울리는 요란스러운 騒音속에서 作業을 하게되었든것이다. X線管球은 Gas 管球을 사용하기도 하고 주로 Coolidge 管球을 쓰고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年餘前의 일이다. 1925年 日本慶應大學醫科教授 藤浪剛一博士의 首弟子인 鈴木元晴氏가 X線專攻醫師로서 上記總督府病院醫官으로 赴任하여 X線科를 擔當하게된것이다. 鈴木氏는 解放時까지 近 20年間 總督府病院醫官,京城醫學專門學校 및 京城帝國大學醫學部教官으로서 敎育과 診療兩面에 큰 功獻을 남기고 離韓, 故鄉인 日本岐阜縣에서 晩年을 보내다 數年前 作故했다는 消息을 들었다. 이機會에 故鈴木博士의 功績을 追慕하며 아울러 冥福을 비는바이다. 그는 在任中 放射線學敎育과 診療를 擔當하면서 放射線科施設의 擴充, X線技師養成, 朝鮮렌트겐協會創設, 京城帝國大學醫學部에 처음으로 放射線醫學講座獨立을 이룩해 놓은 등 對內對外的으로 刮目할 業績과 또 胸部렌트겐診斷學 消化器렌트겐診斷學 등의 著述을 남기고 떠나게되었든것이다. 當時 鈴木博士에 師事해서 放射線醫學을 專攻한 人士들이 追憶에 남는다. 城大出身의 山中英一, 加藤隆, 京城醫專出身의 岡田正彥, 寺元高等 日인들이 있었고 韓人으로는 같은 城大出身으로 以北에서 作故했다고 傳해지는 李富鉉氏와 筆者 두사람의 적적한 食口였지만 初創期의 放射線醫學을 双肩에 지고 開拓해 나가려는 意慾과 젊음은 누구에나 뒤지지 않았다는 覺悟와 더불어 荊棘의 길을 甘受했다는 즐거운 追憶이 감돈다.

1920年代는 말하자면 이 땅에 放射線醫學의 첫씨가 몇곳에 뿌려진 때라고 하겠다. 세브란스病院 平壤基督病院등에도 X線機械가 稼動되고 있었다.

1930年代에 드려서부터 X線機械의 設置되는 數도 점차 늘어가고 X線技師나 이방면에 從事하는 醫師도 頭角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總督府病院의 後身인 京城帝大醫學部附屬病院에는 鈴木博士밑에 1931年에 山中, 1934年에 故李富鉉, 1936年부터 筆者가 科의 診療를 擔當하고 있었으며 1935年부터는 京城醫專病院放射線科에 岡田, 京城赤十字病院放射線科에 寺元氏가 X線診療를 擔當하고 있었다. 京城醫專 세브란스醫專, 京城帝大醫學部 뒤에 新設된 大邱醫專과 平壤醫專中, 平壤醫專에는 1936年 日本九州大學出身인 阿武保郎氏가 放射線科主任으로 赴任하게 되고 세브란스病院에는 X線技師의 職分으로 美國에서 도라온 鄭一史(解放이듬해에 作故)氏가 X線科의 主任으로 있었다.

한편 京城帝大醫學部附屬病院放射線科에서는 鈴木博士指導아래 X線技師를 養成輩出하게 되었고 1932년에는 國內 專門醫師와 X線技師를 網羅한 朝鮮렌트겐協會가 創立되어 解放前까지 會誌를 發刊, 會員의 親和와 學術向上에 이바지한바 크다 하겠다.

1940年代에 드려서 京城帝大醫學部에 처음으로 放射線醫學講座가 獨立新設되어 制度上 從來의 面目을一新했다. 實로 이는 이땅에 放射線醫學의 基盤이선 劃期的事實이라 하겠으며 그後 이어 京城醫學專門學校및 그後로 新設된 京城女子醫專에도 放射線醫學講座가 正式으로 獨立新設된 것이다. 即 解放前까지는 上記三校만이 放射線醫學의 正式講座를 갖고 있었든 것이다. 當時新設된 京城女子醫專 放射線科講座는 創立初에 筆者가 그後 李在珪氏가 擔當한 記憶이 난다.

X線裝置도 面目이一新되며 普及되기始作했으며 綜合病院은 勿論 個人病院에서도 X線機械를 所有하는傾向이 漸高되었다. 深部治療施設이 된곳 만도 京城大學病院以外에 京城醫專附屬病院, 龍山交通病院, 平壤醫專附屬病院等 增加되고 있었다. 機械의 內容도 無整流機械整流時代에서 全波整流 Sielex 管球 三相交流 全波整流 Rotalix 管球로 改良된것으로 바뀌지기 始作했다. 城津高周波工場病院, 興南室素工場病院, 阿吾地炭鑛病院

等 新設病院의 X線裝置는 훌륭했으며 大邱東山病院 全州耶蘇病院, 大邱·光州道立病院(後에 醫專附屬病院) 京城, 釜山 府民病院등의 X線科는 活潑히 機能을 發揮하고 있었다. 그當時 大學病院에서 筆者가 쓰던 Siemens 會社製의 Tuto-Stabilivolt 深部治療機 및 獨逸 Pohl-kiel 會社의 Omniskop 透視臺는 患者를 固定시킨後 前後로 180°, 左右回轉 360°가 自由自在로 調整되는것으로 지금도 잊어지지않는 器械들이었다.

1940年代의 또하나의 特記할일은 X線集團檢診이 始作된일이다. 35mm X線間接攝影機가 처음으로 導入된것이 1940년, 集團檢診이 普及되어 軌道에 오른것이 1942년부터였다. 이事業은 朝鮮結核豫防會(現大韓結核協會의 前身)가 主動이되었고 道, 市, 學校保健所에서 實施되고있었다. 筆者가 「韓人結核의 疫學的研究」에 손 올렸던것도 朝鮮結核豫防會在職時節의 일이다. 現在의 60mm 또는 70mm 集團撮影에 對照하면 隔世의 感이 든다.

한편 Radium에 있어서는 現在 그것이 各醫科大學附屬病院에서 또는 著名한 綜合病院 및 癌센터—等에서 使用되고있는데 比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였지만 그래도 1930年代에 들어서며 부터 京城大學醫學部附屬病院을 비롯해서 龍山交通病院, 釜山府民病院等 綜合病院에서 Radium 治療에 效果를 거두고있었으며 個人으로서도 京城婦人科病院의 工藤氏가 Radium 治療에 손을대고있었다.

#### 1945年 解放以後——

解放後 우리들만으로 大韓放射線醫學會 創立總會를 연것이 1945年 10月, 곳은 舊京城醫專附屬病院(現在 首都陸軍病院)講堂이었다. 40餘名の 舊朝鮮レント겐協會會員들이 參席했었다. 그러나 醫師會員은 數名에 不遇했다. 故李富鉉氏가 初代會長으로 選任되고 筆者와 朴良奎氏(技師)가 副會長이 되었다. 憲章이 定해지고 回顧와 親和 그리고 앞으로의 團結과 發展을 다짐했는것이다. 會員構成은 放射線醫學에 從事하는 醫師와 技師를 統括하기로 되었는것이다.

이것이 1955년에 이르러 X線技師만으로 大韓放射線技術學會가 創立됨에따라 技師會員이 自然的으로 分離되고 後에 憲章이 改正되어 放射線醫學會는 放射線醫學專攻醫師만으로의 團體가 된것이다. 現在까지 19次의 總會와 學術講演會를 가진 大韓放射線醫學會와 더불어 우리나라 放射線醫學界는 發展해온 것이다.

歷代會長 1945年~1947年 故李富鉉氏

1948年~1961年 筆者

1962年~ 安致烈氏

다음에 그發展의 발자취를 人的面, 制度面, 施設面 및 學術面에서 더듬어보기로 하자.

#### 六·二五動亂前(1950年)까지——

人的面: 解放後 大學教育會에 依해서 各醫學專門學校는 大學으로 昇格되었고 따라서 放射線科도 獨立된 講座로 生出發을 하게되었지만 科에 敎職責任者가 있는 곳은 오직 서울大學校 醫科大學뿐이며 下記하는 諸氏가 처음으로 教室에 들어와서 이分野의 先驅者로서의 길을 트기始作했다. 現在 서울醫科大學放射線科科長인 朱東雲氏가 日本熊本大學에서 돌아와 入局했고 現在 大韓放射線醫學會會長이며 原子力院放射線醫學研究所長인 安致烈氏가 母校平壤醫專放射線科에서 阿武博士에 師事하다 入局하였고 現在 韓一病院放射線科科長인 金楨鎮氏와 現在 梨花大學校醫科敎授인 金熙涉氏가 같은 서울大學出身으로 敎室員이 되었던 것이다. 當時 敎職에있던 李富鉉氏는 故人이되고 技師出身으로 醫師가되었던 金東昌氏는 拉北되고 筆者만이 남아있는셈이다.

#### 六·二五에서 1955년까지——

六·二五動亂後 敎室員全員이 軍醫務 放射線診療에 從事하게되었으며 그외에도같은 放射線科에 從事한 崔榮潤, 李鏡龍, 呂運鵬, 金舜鏞諸氏가 있고 1952년부터 實施된 X線軍醫官教育過程을 거쳐 輩出된 X線科勤務 軍醫官들의 活躍이 斯界發展에 큰役割을 하였고 또 軍醫學校가 主動이된 X線技師養成教育은 300名以上の 젊은技師들을 育成하게되었다. 또 그동안 戰禍 卒의 우리를 救護해준 釜山瑞典病院및 西獨病院, 大邱의 瑞西病院 그리고 駐韓美軍病院의 放射線科는 斯界에 從事하는 韓人醫師 및 技師들에게 많은 敎訓을 남겨주었다. 특히 釜山에있는 Grauman 博士夫妻 大邱에있는 Ludinn 博士의 功績을 우리는 잊을수 없다.

#### 1935年以後——

六·二五動亂을 통해서 우리醫學全般이 큰 發展을 했다고 보겠으나 특히 放射線醫學의 發展은 刮目할 만했다. 많은 醫師들이 放射線診療를 體驗하게되었고 또 放射線醫學을 工夫해보자는 意慾이 그 어느때 보다는 높았는것으로 생각된다. 卒業後 이分野를 志望하는 醫學徒의 數가 늘었고 放射線醫學을 目標로 外國留學하는 學徒들 또 外國에서 放射線醫學을 研究하고 歸國하는 醫師의 數가 눈에 띄게 늘어갔다. 現在 教育機關 또는 代表的인 診療機關의 放射線科主任들의 大部分이 外國留學에서 돌아온 새얼굴들이요 外國留學中인 放射線醫學徒들만도 10餘名을 헤아릴 정도이다.

하여튼 日帝時의 斯界를 回顧할때 質의 向上은 勿論이요 量的으로만 보더라도 現在의 우리放射線醫學會가 100名 以上の 會員과 56名の 專門醫를 갖게되었으며 400餘名の 放射線技師가 있다는 事實은 斯界의 發展을 雄辯하는것이라고 하겠다.

또 이時期에 있어서 特記할일은 中央醫療院이 創設되어 最新의施設을 가진 放射線科가 斯界의 教育과 診療兩面에 至대한 貢獻을 한 사실이다. 初代科長으로 來韓한 Lillya 博士, 그리고 博士의 모습은 우리머리에 길이 남을것이다.

다음에 教育機關및 重要한 診療機關에서 現在 放射線科를 主管하고있는 人士들을 紹介해두련다.

國立서울醫科大學(朱東雲), 延世大醫科大學(安承鳳), 首都醫科大學(張基完), 梨大醫科大學(金熙涉), 가톨릭醫科大學(金應浩), 慶北大 醫科大學(金舜鏞), 全南大醫科大學(權忠植), 慶南大 醫科大學(申勝雨), 中央醫療院(姜錫麟), 原子力院放射線醫學研究所(安致烈), 韓一病院(金楨鎮), 서울赤十字病院(金在燮), 서울交通病院(李範鍾), 서울衛生病院(李根化), 首都陸軍病院(宋益薰), 仁川基督病院(權泰洙), 大邱東山病院(徐哲星), 大韓石公醫療院(尹琮燮), 서울 市立中部病院(金振鏞),

**制度面:** 下記하는 事實들은 解放後 우리放射線醫學界의 制度上에있어서의 進展相을 말하는것이라하겠다. 卽 解放直後 大韓放射線醫學會, 그리고 1955년에는 大韓放射線技術學會가 創立되었고 日政時 京城大學, 京城醫專, 京城女子醫專 3個校에 局限했던 放射線科獨立講座가 現在에는 8個醫科大學全部에 設置되었으며 1954년부터는 專門科目標榜許可를爲한 專門醫資格考試制度가 마련되어 專門醫資格을 얻은 放射線科醫師가 이미 56명에 達하고있음은 前述한바이다. 1960年代에 이르러 特記할것은 原子力의 平和의利用에關해 韓美兩國間에 原子力協定이 締結되어 國立原子力院의 發足を보게되었으며 1963년에는 原子力院內에 다시 放射線醫學研究所가 생기는 한편 放射性同位元素의 國內生産이 可能하게되는等 劃期的인 進步를 보게된것이다. 또李文鎬氏等이 主動이되어 核醫學會가 誕生하고 最近에는 放射性同位元素取扱者免許制度가 實施되는等 이方面의 準備態勢는 着着 完備의길을 서두르고있다. 이와 步調를 같이하여 懸案中の 放射線災害問題도 立法措置中으로 그 實施 亦是 不遠한 時間問題라고 보겠다.

診療X線技師에 對한 問題도 醫療補助員法으로 身分의 保障과 職分의 限界를 明示하게되었으니 制度上的 進步라 아니할수 없고 技師의 資質向上을 爲한 國立保健院 및 大學放射線科의 教育計劃은 그效果가 크게 期待되는바이다.

**施設面:** 解放後~6.25動亂時까지 이時期에 있어서의 放射線科施設은 主로 日政時의 遺産을 繼承하고 있었으며 駐韓美軍이 쓰고있는 Picker 製 野戰用X線裝置가 一部 公共機關에 配置되어있는 程度이고 少數의 100 mA 以上級の 診斷用裝置(美製)와 250 KV. Maximar 深部治療機(美製)가 4~5臺 새로 導入되어 設置途中에 있었다.

## 還都後~1955년까지——

大體로 貧弱하기 짝없든 그나마의 施設조차 6·25動亂의 犧牲이되어 灰燼에 도라가버린때였다. 서울 收復後 約5年間은 施設의 傷處를 補完하기에 汲汲할때였다. 注目할程度의 새로운 施設이란 戰後救護의 目的으로 생긴 大邱瑞西病院(後에 慶北醫大에 引繼되었음)과 釜山 西獨病院의 施設을 들을수 있을까한다. 그리고 軍에 있어서의 集團檢診施設의 擴充을 그간의 所得이라고 보겠다.

## 1956年 以後——

이時期는 한마디로 말해서 6·25動亂으로 因한 被害를 復舊하고 한겨름 더나아가서 새로운建設과 現代化를 우리施設面에 가져온 때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于先 診斷用X-線裝置에있어서 醫學教育機關, 著名한 綜合病院및 結核療養院等の 放射線科施設은 先進國施設에 그다지 遜色이없는 現代式體貌를 갖추게되었으며 軍病院에있어서도 새로운 器械가 着着 設置되어가고 있는 現狀이다. 또 Radium 治療施設의 普及과 더불어 大部分의 醫科大學病院에서는 훌륭한 X-線深部治療機가 움직이고 있다. 더욱 이러한 現代化된 放射線科에 設置된 Tomo 撮影, Spot 撮影및 血管撮影等の 特殊撮影裝置는 診斷의 能率을 높이고 있다.

한편 結核豫防을爲한 X-線集團檢診施設은 加一層 普及 現代化되었고 特히 最近에는 移動檢診을 爲한 X-線檢診用自動車의 登場을 보게되었다.

放射性同位元素分野에 있어서는 國立原子力院의 發足과더불어 放射性同位元素의 國內生産이 可能해지고 數個 醫科大學에서는 이미 Isotope-Center가 생기고 또 1952年 韓一病院에 導入設置된 Caesium 137 治療裝置및 1963年 原子力院放射線醫學研究所에 施設된 Cobalt 60 治療機를 放射線治療施設의 錦上添花格이라 하겠다.

끝으로 施設面의 機械工業의發展을 생각할때 首都서울에 만도 高麗X-線, 同仁X-線, 星信X-線및 中央X-線等 數個工業社가 이方面에 研究從事하고있어 最小限의 國產X線撮影機의 製作이 可能케된 事實을 慶賀해마지 않는다.

以上으로 大病院의 放射線科施設이 普及補強되고 現代化된 概況을 짐작할것으로 아는바이며 個人病院의 X線施設도 이에 準해서 普及되고 向上된것은 事實이지만 大病院施設의 大部分이 援助에 依한 外國財源에 依存한것이기 때문에 그惠澤을 直接的으로 받을 수 없는 個人病院의 處地인지라 極少數의 病院을 除外하고는 大多數의 個人病院의 X-線機械施設이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 있음이 遺憾이다.

**學術面:** 解放後 19年이란 歲月이 흐르는동안에 이

分野를 專攻하는 醫學徒들이 몇10배나 늘고 發表된 研究의 業績이 몇百倍나 늘었다. 엄청난 量의 增加이다.

研究內容이 보다 充實해지고 새로워진 것이 如實히 窺어진다. 놀라운 質의 向上이다. 10年이면 山川草木도 變한다더니 日政當時를 回想하면 참으로 天壤之差別의 隔世之感이 든다.

研究態度부터가 많이 달라졌다. 客觀的이요 民主的이라고 할까 集談會, 심포지움 등의 知識交流의 方式이 事實을 말해준다. 勿論 過去에도 集談會도 있었고 심포지움도 있었다. 또 過去사람들의 研究態度가 다 非客觀的이요 非民主的이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主觀的인 自己見解를 唯獨히 내세우고 獨斷으로써 自己의 權威를 지키려는 偏狹한 固執으로 研究의 氣風을 흐리게 하는 一部學者들에 대한 憎惡가 아직도 惡夢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非單 放射線學界에 限한일도 아니요 모든 學問에 共通된 研究態度이지만 요즘의 深深하고 明朗한 態度에 好感을 느껴 호뭇한 心情을 털어놓았을뿐이다.

放射線醫學의 教育面을 보자 File-system의 整備에서 오는 豊富한 教材, 그리고 視聽覺教育方法, 實習을 통한 體驗, Conference를 통한 批判力의 養成과 討論의 訓練 및 關聯된 他分野知識의 習得 客觀的 考查方法의 實施等 여러角度에서 教育面의 進步를 말할 수 있다. 한 가지 慾心을 말하자면 教授로서 聽講하는 學生들에 傳하고저하는 內容과 目的이 어느程度로 理解가 가고 傳授되었는지의 效果測量이 定期考查의 成績結果로서 事後的으로 判斷됨에 앞서 教育者自身의 立場에서 批判되고 다루어져야 할 問題들, 例컨대 教授로서의 意思發表의 論理, 言語, 發音等 所謂 知識傳授의 方法論같은 技術的 問題가 좀더 考慮되었으면 한다.

研究業績에 대하여, 前述한마와 같이 量的으로나 質的으로나 놀라운 進步를 보이고있다. 發表된 論文들을 概觀한다면 診斷에 關한 研究가 가장 많고 다음이 治療에 關한 것이요 放射線物理 및 生物學에 關한 基礎的인 研究는 稀少한편으로 이方面에 대해서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한 느낌을 준다. 研究手段으로서 X-線을 取扱한 것이 大多數요 Radium, Isotope을 相對로 한것은 적은

편이나 每年 들어가는 傾向이 엇보인다. Isotope의 歷史가 짧으니 만치 當然한 일 일게다.

研究論文의 內容이 大體로 充實해졌고 깊이가 있다. 症例報告만 하더라도 過去에 國內에서 못모든 症例가 續續 報告되고 있다. 이는 研究者들의 學識의 水準이 높아진 證據요, X-線診斷術의 進步의 德澤이라 하겠다. 그만큼 우리가 쓰는 檢査道具로서의 X-線裝置의 正確度和 精密度가 높아졌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음 外國研究業績의 追試이라고 할까 韓人을 研究對象으로 한 같은範疇의 研究도 적지않은데 여기에서 筆者는 우리 研究者들의 批判力을 높이 評價하고 싶다. 韓人에 特異한 새로운 事實을 많이 배울수 있었다. 極端的으로 相反된 事實을 發見한 例도 不尠하다. 한편 追試的인 이러한 研究를 통해 韓人에 關한 統計的 基準이 세워지기도 했다. 우리는 外國成書나 文獻의 事實을 날카롭게 批判하는 立場에 서게 된것이다. 한편 우리 研究者들은 韓國의 土疾이라고도 볼 수 있는 肺吸虫病研究에 있어서 外國研究者들이 미치지 못한 많은 새로운 發見을 했다.

研究方法도 많이 洗鍊되었고 臨床的 研究 뿐만 아니라 實驗的 研究의 數가 차차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있다. 國內뿐만 아니라 外國研究室에서 한 우리 研究者들의 業績이 外誌에 紹介되어 學界의 注目을 끌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研究者들의 業績은 量으로 質로 向上되었고 또 多方面에 걸쳐서 多彩로웠다. 참으로 多幸한 일이다. 그리고 이業績들이 經濟적으로나 社會적으로나 不遇한 研究環境속에서 이루어진것을 想起할때 그들의 意志와 勇氣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學術面에 있어서의 또하나의 所得은 1962年 上梓된 朱東雲著書인 「텐트겐診斷學」을 들을수 있을까한다.

끝으로 한가지 所望이 있다. 이分野의 研究歷史가 아직도 日淺하니 無理한 希望인지는 모르나 한 研究目標(Thema)를 爲해서 一貫性和 繼續性있는 研究姿勢가 아쉽다. 그리고 共同研究의 힘으로 큰收獲을 얻도록 다시말하면 榮譽의 獨占慾을 버리고 謙遜한 마음으로 teamwork을 大成시키는 雅量이 아쉽다. 이러한所望은 特別히 研究指導者가 되실 분들에게 드리고싶다.

(1964. 2. 10 記)